

'서구 아너스' 후원금 20억...복지 마중물 활용

출범 100일만...후원자 초청 간담회 나눔문화 확산·사각지대 해소 최선

광주시 서구가 고액 후원자 그룹 '서구 아너스'를 결성해 100일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다.

서구는 서구 아너스 출범 100일을 맞아 최근 광주 시 서구 치명동의 한 카페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후원 모금 성과를 공개했다.

서구 아너스는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성된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지난해 11월 결성했다.

출범 100일차인 지난 17일 기준으로 후원자 56명을 확보했으며 후원금 20억 3000만원이 모였다. 후원 회원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

만원 이상을 일사납 또는 5년간 기부를 약정한 개인 및 기업·법인 대표 등이 모였다.

서구는 이 후원금을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등 공공부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투입해 '복지 특세 제도'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첫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15세대(52명)를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씩 총 2600만원을 후원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100세대에 온누리상품권 20만원씩 지원했다.

이달 중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110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희귀질환

자 돌봄 가족, 시각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매일 주제가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는 서구청 1층에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서구아너스의 기부현황과 나눔 메시지를 실시간 송출하고, 즉석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 운영으로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서구 아너스 1호로 가입한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 서구아너스와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꿈이 되고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 원장, 문순자 한미건설(주) 대표 등도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서구아너스를 만나게 됐다"며 "우리의 작은 뜻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서구 아너스에 후원하기 위해 18년만에 중국 친정을 방문한 김순애씨는 "결혼 후 상봉이 낯과 키우면서 고향 방문할 여유가 없었는데 서구아너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친정 가족들을 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가 착한도시 서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뜻과 정성, 발걸음이 큰 감동과 커다란 행복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착한 영웅들과 함께 복지특세 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리모델링 완료 개청식

광주시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

북구는 19일 오후 3시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4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화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건물을 증축 및 내·외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군영로 233) 2층 다목적실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 공연, 경과보고, 개청 축하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 촬영, 청사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한 15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해 3층 공간을 신규로 증축하고 회의실과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조성했다.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내부 보행 단차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청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과 고성능 창호를 설치하고 건물 외단열을 보강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전 청사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종이팩 재활용 앞장

노인 일자리 연계 회수체계 구축

광주시 동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환경 지키기에 나선다.

동구는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자원순환 플랫폼 '동구라미 온(ON)'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종이 팩 회수 체계를 구축, 종이 팩 재활용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천연필프가 주원료인 종이 팩은 제대로 재활용하면 화장지나 백판지 등 재생자원이 될 수 있는 고품질 자원임에도 꼼꼼한 세척·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는 특성과 별도 회수 체계 등이 구축돼 있지 않아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종이 팩의 재활용률은 13.2% (2023년 기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의무량 29.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동구는 추진하는 종이 팩 회수체계 구축 사업에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유어스텝 등 민·

관·환경단체와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에 힘을 보탬다.

이들은 동구라미 온과 연계해 새로운 종이 팩 회수모형을 개발해 동구 관내 카페·빵집 등 500개소와 협력체계 구축하고 종이 팩을 회수할 예정이다. 종이 팩을 배출한 카페 등은 동구라미 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순 종이 팩 회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1회용품 사용 감량(텀블러 사용 등) 콘텐츠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동구는 지난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에서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를 논의하는 '종이팩 순환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카페 등에서 동참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산구,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종합 대상

지역경제 성과·실적 평가 전국 1위

광주시 광산구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1위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에 근거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성과와 실적을 평가한다.

광산구는 일자리,고용, 물가,소비자,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 등 8개 부문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가, 소비자, 문화관광 2개 부문에서도 각각 최우수상(2위), 은상(4위)에 선정되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관왕'에 올랐다.

물가, 소비자 부문에선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 2024년 기준 착한가격 액소를 전년보다 50% 늘어난 75곳을 지정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고물가 시기 경제적 약자에게 1000

원에 든든한 점심을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천원환기 식당'도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2회 연속 대성황을 이룬 광산뮤직ON 페스티벌, 3만여 명이 몰린 광산세계야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축제 육성이 문화관광 부문에서 성과로 꼽힌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40개 중 문화관광 분야가 12개로 약 30%에 달한다. 광주 대표 명품 길을 내건 '황룡강생태길30' 조성이 대표적으로 공약 이행 순항 중이다.

또 광산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정부 관광단지 로 지정된 여등산에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 '그랜드스타필드' 조성 추진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와 연대·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토대를 다지고,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남구 양림동 한바퀴 테마 투어 28일~3월 6일 운영단체 모집

광주시 남구가 근대역사문화 마을인 양림동에서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공모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양림동 한바퀴 테마 투어 프로그램 운영단체 서류 접수가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건축·예술 투어와 선교 투어, 다크 투어리즘 3종류이며, 공개 모집 참가 자격은 광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문화·건축·관광·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사업단계 적격성과 사업 독창성 및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단체당 단일 분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심사를 통해 주제별 운영단체를 선정하며, 분야별 선정 단체가 1곳일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근거해 적격 여부를 따진 뒤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만의 특색을 살린 테마 투어 프로그램이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